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역할

The Mediating Roles of Fathers' Parenting Stress between Fathers' Perceived Marital Conflicts and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1차원고접수: 2026.04.09. 수정원고접수: 2026.05.26. 최종게재결정: 2026.06.21.

김서경¹ · 장경은²

¹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²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Kim, Seo Gyeong¹

Jahng, Kyung Eun¹

¹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만 7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7세 아동과 부모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 자료의 총 2,150가구 중 본 연구 변인에 응답한 1,414가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한 횡단적 관찰연구로 설계되었으며, 변수는 아버지 평정 부부갈등 척도, 어머니 평정 CBCL 6-18세용 척도, 아버지 평정 양육스트레스 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31.0을 활용하여 Cronbach's α 계수 산출, 기술통계, 빈도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 PROCESS macro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성별과 부모의 최종학력, 취업여부, 월 가구 소득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스트레스 대처 및 정서조절 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부모 교육과 심리·정서 지원 체계의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부부관계 질 향상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요어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fathers' parenting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marital conflict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7-year-old children. Participants included 1,414 households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2015)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ll of whom provided complete responses to key variables. A cross-sectional design using secondary data was employed. Paternal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stress were reported by fathers, while children's problem behaviors were assessed using the mother-reported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6-18.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31.0, including Cronbach's alpha,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PROCESS Macro Model 4. Child gender, parental education level, employment status,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were controlled. Results indicated that fathers' parenting stres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arital conflict affects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fathers' parenting stres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tailored parent education,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s, and interventions to improve marital relationships.

Keywords marital conflict, parenting stress, internalization, externalization, problem behavior

Corresponding to 장경은(Jahng, Kyung Eun)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E-mail. jahng78@gmail.com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많은 아동들이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 부적응 문제를 경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우울감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3). 특히 학업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요인은 아동의 스트레스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이 개인의 정서적 차원을 넘어 학교생활 전반과 연관된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양상은 아동기 문제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최근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와 학교 적응 어려움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심리·정서적 어려움 및 부적응 문제는 아동기 문제행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크게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된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불안, 우울, 위축과 같이 정서가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 문제를 의미하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공격성, 반항, 파괴적 행동 등 통제의 어려움이 겹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행동 문제이다(Achenbach & Rescorla, 2001).

정규교육 체계에 처음 진입하는 학령기 초기 시점의 적응 양상은 이후 학업 수행과 사회적 적응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Pears, Kim, & Brown, 2018), 이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김대옥, 이정진, 2021).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시기에 해당하는 만 7세 아동의 문제행동을 분석하는 것은 발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Sayal, Washbrook과 Propper의 연구(2015)에 따르면 만 7세 때 부주의·과잉행동·반항 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16세가 되었을 때 학업성취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동기에 나타난 문제행동이 학교 부적응 뿐 아니라 장기적 학업 실패 및 또래 관계, 학교생활 전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김대옥, 이정진, 2021). 또한 유아기 및 아동기에 높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던 아동·청소년은 이후 시점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며, 시간 경과에 따라 문제행동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염정원, 조한익, 2016; 이봉주, 민원홍, 2015). 이는 아동·청소년기에 나타난 문제행동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이후 발달 단계에서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기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문제행동의 원인과 경로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예방적·중재적 접근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적 요인 가운데 하나는 본 연구에서 통제변인으로 설정된 아동의 성별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으며(김혜진, 김영아, 이진, 오경자, 2009; 임현주, 2015), 강지현의 연구(2014)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내재화 문제행동의 초기치가 더 높고 변화율도 더 빠르게 증가한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남아의 초기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지현, 2014).

다만 성별을 제외한 개인적 특성들 대부분이 선천적이기보다는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적 맥락 속에서 형성 및 강화되며 발현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Danzig, Dyson, Olino, Lappook, & Klein, 2015; Hong & Park, 2012) 아동의 문제행동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기질(김진현, 최은실, 2024)과 같은 선천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을 고려하여 변화 가능성이 큰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환경적 요

인으로 지역사회, 학교, 가정환경 등이 포함되나, 아동의 발달에 가장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환경이다. 특히 부모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취업 여부, 가구소득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혜진 등, 2009; Horoz et al., 2022; Huaqing & Kasier, 2003; Kopp, Lindauer, & Garthus-Niegel, 2024). 또한, 부모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기냉담 등 다양한 개인내적 요인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아름, 2021; 홍선표, 한세영, 2025). 본 연구의 핵심 변인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도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였는데, 김현수의 연구(2025)에서는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 변인들은 부부관계라는 상위 관계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다(Ulbricht et al., 2013). 특히 부부관계 중에서도 부부갈등은 부모의 우울,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으며(이형실, 2023; 최경일, 조성희, 2022; Han, Yang, & Lee, 2024), 다양한 부모 요인 전반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핵심 환경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인구 1천 명당 1.8건으로 전년대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혼 문제가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이혼율은 해결되지 못한 부부갈등이 누적된 결과이자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해석될 수 있으며(김세정, 2025),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이혼의 가장 핵심적인 예측요인으로 부부갈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Carrère & Gottman, 1999; Gottman & Levenson, 1999). 가족체계이론(Bowen, 1976)에 따르면,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서 개인은 가족 내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부부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및 사회적 적응과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부부갈등이 단순히

부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체계 전반과 아동의 발달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위험요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에 주목하여,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부부갈등에 대해 이민식과 오경자(2000)는 부부간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 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으며, Davies와 Cummings(1994)는 부부갈등은 부모 간의 공개적이고 정서적으로 부정적이며 위협적인 상호작용으로,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손상시키는 갈등이라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김유선, 박종실, 김영희, 2018; 한영숙, 2019), 부부갈등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희, 박지선, 2017; 정춘희, 박성철, 전동일, 2023). 장영애와 이영자의 연구(2011)에서는 빈번하고 강도 높은 부부갈등이 발생하는 가정환경에서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 발달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험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부부갈등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적응과 양육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화정과 도미향(2025)은 부부 간의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또한 심화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형실(2016)은 부부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과 긴장을 반영하는 핵심 변인이다(Barroso, Mendez, Graziano, & Bagner, 2018; Fang et al., 2024).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전통적 주양육자로 간주되어 온 어머니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주요 변인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아버지의 가사 및 양육참여가 증가함에 따라(국가데이터처, 2026), 양육스트레스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만 국한된 변인이 아닌 부부 모두의 심리적 적응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의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은 주로 아버지의 개인 심리 특성이나 부부관계, 양육참여 등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양육스트레스 자체를 결과 변인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이지민, 노은혜, 김연하, 2016; 정연아, 유준호, 2025; 조해연, 유준호, 2021; 현정환, 2018). 즉, 기존의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의 선행요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양육스트레스가 실제 아동의 발달 결과와 어떠한 경로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과거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아진 시점에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 양육행동과 부모 반응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이지예, 신경순, 김영희, 2017; Ward & Lee, 2020),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부부갈등이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홍길희, 문소라, 2019; Xuan et al., 2018).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거나 미취학 아동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일부는 해외 연구에 한정되어 있어 국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여 그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물론 본 연구의 변인들은 상호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횡단자료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족체계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서 비롯된 정서적 긴장이 부모의 양육경험을 거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아버지가 인식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떤 심리적 경로로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아버지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이 부모의 양육행동 수준을 넘어, 부부관계와 부모의 심리적 적응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경험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만 7세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의 총 2,150가구 중 모든 연구 변인에 대해 응답한 1,414가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만 7세 아동의 성별은 남아 724명(51.2%), 여아 690명(48.8%)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가 387명(27.4%), 전문대졸 이상이 1,027명(72.6%)이었고,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가 418명(29.6%), 전문대졸 이상이 966명(70.4%)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취업여부는 74명(5.2%)가 미취업 상태였으며, 1,340명(94.8%)이 취업 상태였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789명(55.8%)이 미취업 상태였으며, 625명(44.2%)이 취업 상태였다. 가구 월 소득의

표 1. 연구대상자 특성 (N = 1,414)

변인	구분	사례수(%)
아동성별	남	724(51.2)
	여	690(48.8)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이하	387(27.4)
	전문대졸이상	1,027(72.6)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이하	418(29.6)
	전문대졸이상	996(70.4)
아버지 취업여부	미취업	74(5.2)
	취업	1,340(94.8)
어머니 취업여부	미취업	789(55.8)
	취업	625(44.2)
변인	M(SD)	
월 가구 소득	461.74(199.64)	

주. 8차년도 자료에서 추출.

평균은 461.74만원($SD = 199.64$)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2. 측정도구

1)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Markman, Stanley와 Blumberg (2001)가 제작한 부부갈등 척도를 정현숙(2004)이 수정·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결혼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화되었다. 해당 척도는 아버지가 평정한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 예시는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간의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다.

2)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만 7세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Rescorla(2001)의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6-18세용 척도를 오경자와 김영아(2010)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어머니가 평

정한 총 1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문항 중 내재화 문제행동 32문항, 외현화 문제행동 35문항을 활용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불안/우울 13문항, 위축/우울 8문항, 신체증상 11문항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안/우울은 ‘특정한 동물이나 상황, 장소(학교는 제외)를 두려워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위축/우울은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신체증상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치게 피곤해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규칙위반 17문항, 공격행동 18문항 총 2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칙위반은 ‘잘못된 행동(버릇없이 굴거나 나쁜 짓)을 하고도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 같지 않다.’, 공격행동은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으로 Likert 3점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재화 문제행동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이었고, 외현화 문제행동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었다.

3)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 요인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발췌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버지가 평정한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 예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느끼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 성별,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취업여부, 가정의 월평균 수입 등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아동 성별은 남아는 1, 여아는 2로 이분 변수 코딩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각 부모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고졸 이하는 1, 초대졸 이상은 2로 코딩하였으며, 취업 여부는 미취업을 1, 취업을 2로 코딩하였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응답자가 기입한 오픈형 답변을 토대로 월평균 소득(만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3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5000회 반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문제행동,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고유한 관계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모든 분석에서 아동 성별,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취업여부, 가정의 월평균 수입을 통제하였다. 통제변인이 추가됨에 따라 매크로 분석에서 일부 사례가 제외되어 유효 표본 크기가 감소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먼저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을 기술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r = .14, p < .001$)과 외현화 문제행동($r = .14, p < .001$), 아버지 양육스트레스($r = .51, p < .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스트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 = 1,414$)

변인	1	2	3	4
1.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			
2. 아동 내재화 문제행동	.14***	-		
3. 아동 외현화 문제행동	.14***	.67***	-	
4.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51***	.16***	.16***	-
<i>M</i>	16.35	3.75	4.22	24.17
<i>SD</i>	5.84	4.25	4.63	6.84
<i>Min. - Max.</i>	8 - 38	0 - 64	0 - 68	11 - 47
<i>score range</i>	8 - 40	0 - 64	0 - 70	11 - 55
왜도	.53	3.49	3.36	.08
첨도	-.11	32.00	29.12	-.32

*** $p < .001$.

레스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r = .16, p < .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r = .16, p < .001$) 또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변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왜도와 첨도를 나타내어 정규성 가정에서 일부 벗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문제행동 척도는 일반 아동 집단에서 낮은 점수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비정규 분포가 흔히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Hayes와 Preacher (2010)에 의하면, 간접효과의 표집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간접효과를 추정할 때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부트스트랩은 간접효과의 비정규적 분포

에 비교적 덜 민감한 편이어서 안정적인 신뢰구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2.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내재화 문제 행동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역할 검증

본 연구는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정적($B = .10, p < .001$)으로 예측하였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은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정적($B = .58, p < .001$)으로 예측하였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부부갈등은 정적($B = .06, p < .01$)으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는 정적($B = .07, p < .001$)으로

표 3.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역할 ($N = 1,414$)

	독립변수	종속변수	B	S.E.	β	t	LLCI	ULCI	F(df)	R ²
통제 변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 내재화 문제행동	.10	.02	.13	5.06***	.06	.13	6.91*** (7,1406)	.03
	아동성별		.06	.22	.01	.29	-.37	.50		
	아버지 교육수준		-.07	.30	-.01	-.24	-.66	.51		
	어머니 교육수준		-.30	.29	-.03	-1.03	-.88	.27		
	아버지 취업여부		.73	.51	.04	1.44	-.26	1.73		
	어머니 취업여부		-.07	.23	-.01	-.30	-.53	.39		
	월가구 소득		-.00	.00	-.10	-3.48***	-.00	-.00		
통제 변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아버지 양육 스트레스	.58	.03	.50	22.07***	.53	.63	83.65*** (7,1406)	.29
	아동성별		-.51	.31	-.04	-1.66	-1.11	.09		
	아버지 교육수준		-.87	.41	-.06	-2.13*	-1.68	-.07		
	어머니 교육수준		-.76	.40	-.05	-1.88	-1.55	.03		
	아버지 취업여부		-1.06	.70	-.03	-1.52	-2.43	.31		
	어머니 취업여부		.26	.32	.02	.82	-.37	.89		
	월가구 소득		-.00	.00	-.12	-4.80***	-.01	-.00		
통제 변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 내재화 문제행동	.06	.02	.08	2.64**	.02	.10	7.57*** (8,1405)	.04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07	.02	.11	3.43***	.03	.10		
	아동성별		.10	.22	.01	.44	-.34	.53		
	아버지 교육수준		-.01	.30	-.00	-.05	-.60	.57		
	어머니 교육수준		-.25	.29	-.03	-.86	-.82	.32		
	아버지 취업여부		.80	.51	.04	1.59	-.19	1.79		
	어머니 취업여부		-.09	.23	-.01	-.38	-.54	.37		
	월가구 소득		-.00	.00	-.09	-3.03**	-.00	-.00		

* $p < .05$. ** $p < .01$. *** $p < .001$.

아동 내재화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Bootstrapping을 활용해 95% 신뢰구간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총 효과($B = .10$, 95% confidence interval = .06 - .13), 직접효과($B = .06$, 95% confidence interval = .02 - .10), 간접효과($B = .04$, 95% confidence interval = .02 - .06) 모두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분 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역할 검증

본 연구는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정적($B = .10$, $p < .001$)으로 예측하였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정적($B = .58$, $p < .001$)으로 예측하였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

표 4.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구분	<i>B</i>	<i>S.E.</i>	95% 신뢰구간	
			<i>Boot. LLCI</i>	<i>Boot. ULCI</i>
총효과	.10	.02	.06	.13
직접효과	.06	.02	.02	.10
간접효과	.04	.01	.02	.06

표 5.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의 매개역할 ($N = 1,414$)

독립변수		종속변수	<i>B</i>	<i>S.E.</i>	β	<i>t</i>	<i>LLCI</i>	<i>ULCI</i>	<i>F(df)</i>	<i>R</i> ²
통제 변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 외현화 문제행동	.10	.02	.13	5.05***	.06	.15	9.77*** (7,1406)	.05
	아동성별		-1.03	.24	-.11	-4.26***	-1.50	-.56		
	아버지 교육수준		-.01	.32	-.00	-.03	-.64	.62		
	어머니 교육수준		-.80	.32	-.08	-2.52*	-1.42	-.18		
	아버지 취업여부		-.38	.55	-.02	-.69	-1.45	.70		
	어머니 취업여부		.46	.25	.05	1.83	-.03	.96		
	월가구 소득		-.00	.00	-.06	-2.27*	-.00	-.00		
통제 변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아버지 양육 스트레스	.58	.03	.50	22.07***	.53	.63	83.65*** (7,1406)	.29
	아동성별		-.51	.31	-.04	-1.66	-1.11	.09		
	아버지 교육수준		-.87	.41	-.06	-2.13*	-1.68	-.07		
	어머니 교육수준		-.76	.40	-.05	-1.88	-1.55	.03		
	아버지 취업여부		-1.06	.70	-.03	-1.52	-2.43	.31		
	어머니 취업여부		.26	.32	.02	.82	-.37	.89		
	월가구 소득		-.00	.00	-.12	-4.80***	-.01	-.00		
통제 변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 외현화 문제행동	.07	.02	.08	2.79**	.02	.11	9.80*** (8,1405)	.05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07	.02	.10	3.11**	.02	.11		
	아동성별		-1.00	.24	-.11	-4.13***	-1.47	-.52		
	아버지 교육수준		.05	.32	.00	.14	-.59	.68		
	어머니 교육수준		-.75	.32	-.07	-2.37*	-1.37	-.13		
	아버지 취업여부		-.31	.55	-.01	-.56	-1.38	.77		
	어머니 취업여부		.44	.25	.05	1.77	-.05	.94		
	월가구 소득		-.00	.00	-.05	-1.87	-.00	.00		

* $p < .05$. ** $p < .01$. *** $p < .001$.

표 6.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구분	B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총효과	.10	.02	.06	.15
직접효과	.07	.02	.02	.11
간접효과	.04	.01	.01	.06

에 투입하였을 때, 부부갈등은 정적($B = .07, p < .01$)으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는 정적($B = .07, p < .01$)으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Bootstrapping을 활용해 95% 신뢰구간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총 효과($B = .10$, 95% confidence interval = .06 - .15), 직접효과($B = .07$, 95% confidence interval = .02 - .11), 간접효과($B = .04$, 95% confidence interval = .01 - .06) 모두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분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만 7세 아동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에 대해 요약 및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졌다. 즉,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다시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자신이 인식한 부부갈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동진, 전효정과 고은경의 연구(2018)와 방향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며, 부부 간의 갈등이 심할수록 양육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며 스트레스가

더욱 심화된다는 임화정과 도미향의 연구(202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간 차이는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가 단일한 인과 방향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 관계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갈등을 악화시키는 경로에 주목해 왔다면,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심리적 자원을 약화시켜 양육스트레스를 높이는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가족체계이론(Bowen, 1976)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한데, 가족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부부 갈등은 투사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전이될 수 있다. 즉 배우자와의 갈등 상태에 있는 경우, 자녀 양육 과정에서도 자녀의 행동과 관계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 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 간 인과적 관계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제공한다.

아버지의 부부갈등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힌 선행연구(정춘희, 박성철, 전동일, 2023)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부부갈등이 내재화 문제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였다는 김성애와 홍영근의 연구(2019) 결과와도 같은 결과이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주요 변인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를 알아본 것은 부부갈등 정도에 대한 아동의 해석보다는 실제 부부갈등의 정도 파악에 더 근접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내재화 문제 행동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는데, 이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Lee, Pace, Lee, & Knauer, 2018)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김동진 등의 연구(2018)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동진 등의 연구(2018)와는 달리, 본 연구는 정서적 의존성이 비교적 높은 만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버지의 정서 상태가 아동에게 더 직접적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갈등 빈도와 아동의 사회정서적 기술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밝힌 Gong, Kramer와 Tu의 연구(2023)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다만 Gong 등(2023)은 부부갈등의 빈도를 중심으로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아버지가 지각한 갈등 수준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아동의 사회·정서적 기술이 아닌 문제행동을 결과 변인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범위와 초점에 차이가 있다. Xuan 등(2018)은 양육스트레스가 부모 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다만 해당 연구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결과는 가족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가족 체계 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인 하위체계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로, 한 하위체계에서 발생한 변화는 다른 하위체계로 전이될 수 있다(Cox & Paley, 1997). 본 연구에서 부부체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아버지 개인의 심리적 반응인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부모-자녀 하위체계로 전이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이러한 체계 간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졌다. 즉,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며, 양육스트레스는 다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임미지와 문혁준의 연구(2014)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는데, 이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Ünsal과 Acar의 연구(2023)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되어, 일상적 가족환경과는 다른 수준의 스트레스 및 양육 부담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한다고 밝혀진 바 있다(하문선, 2018; Ping, Wang, Li, & Li, 2023). 이는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과 정서적 소진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전달되어, 아동의 정서 및 행동 조절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졌다. 이는 어머니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이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홍길희, 문소라, 2019) 밝힌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어머니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 역시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이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가족 구성원 전체의 정서적·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elsky의 Process 모델(1984)에 따르면 부부관계는 그들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심리적 안녕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이는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연결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만 7세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은 생태학적 체계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따르면 아동의 발달은 가족 요인과 같은 환경적 요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Bronfenbrenner, 1979). 즉,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미시체계 수준에서 발생하는 환경 요인으로,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으로 인해 증가한 아버지의 심리적 부담과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특정 문제행동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아동의 전반적인 정서·행동적 부적응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기의 다양한 문제행동이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보다 공병 양상으로 함께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Angold, Costello, & Erkanli, 1999). 이는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이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두 문제행동 유형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한국 사회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도 과거보다 높아졌으나, 우리 사회는 아직 이인 양육자 모델(유계숙, 2010)을 완전히 받아들인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대부분

의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전이기를 경험하는 만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이 시기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버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다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정서조절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정서코칭 훈련, 심리적 지원 체계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된다. 특히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양육상담, 직장과의 연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온라인 기반 정서관리 교육 등 다양한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부부갈등이라는 점에서,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부부의 의사소통 훈련, 갈등해결 전략 교육, 정서적 친밀감 회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부부체계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정서·행동적 적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령기 초기는 또래관계 형성과 자아개념 발달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정서적 안정성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부모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아동은 불안,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나 공격성, 반항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향후 실천 현장에서는 부부체계와 부모-자녀 체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가족 단위의 통합적 개입이 요구된다.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적 접근을 통해 부부관

계 개선과 양육행동 변화를 병행한다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데이터 마모 및 결측치 문제가 존재하며, 이는 연구의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동일 시점 자료를 활용한 분석으로 변인 간 인과 방향성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종단적 분석을 통해 시간적 선후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이 부부갈등 및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외에도 아동의 기질, 부모의 정신건강, 부모-자녀 관계, 사회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개인 및 환경 변인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주로 설문 자기보고 방식에 기반하고 있어 보고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강지현 (2014). 후기 아동기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미치는 아동의 성별, 지각된 학업성적, 부모, 또래의 영향. *초등상담연구*, 13(1), 155-173.
- 국가데이터처. (2025). 2024년 혼인·이혼 통계. 대전: 국가데이터처.
- 국가데이터처. (2026). 부모별 자녀돌봄시간. 대전: 국가데이터처.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대욱, 이경진 (2021). 유아기 자아개념과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이 초등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9(2), 239-263.
<https://doi.org/10.18230/tjye.2021.29.2.239>
- 김동진, 전효정, 고은경 (2018).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서 단기종단연구: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의 적용. *인지발달중재학회지*, 9(3), 27-50.
<https://doi.org/10.21197/JCEI.9.3.2>
- 김성애, 홍영근 (2019).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부모-자녀갈등이 청소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35(3), 1-20.
<https://doi.org/10.33770/JEBD.35.3.1>
- 김세정 (202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영유아기 부모의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24(4), 263-291.
<https://doi.org/10.30761/ecoece.2025.24.4.263>
- 김유선, 박종실, 김영희 (2018). 부모의 부부갈등, 우울,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간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5(1), 135-155.
<https://doi.org/10.34244/fy.2018.15.1.135>
- 김진현, 최은실 (2024).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의 순차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13(2), 33-54.
<https://doi.org/10.22839/adp.2024.13.2.35>
- 김현수 (2025).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7(5), 1177-1196.
<https://doi.org/10.62783/SHSS.7.5.74>
- 김혜진, 김영아, 이진, 오경자 (2009).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한국 유아의 문제행동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25-144.
- 박진희, 박지선 (2017).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형제자매관계의 매개 과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2), 1-18.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염정원, 조한익 (2016).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과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30(1), 195-223.
<https://doi.org/10.17286/KJEP.2016.30.1.08>
- 오경자, 김영아 (2010). ASEBA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휴노.
- 유계숙 (2010).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9(1), 41-70.
- 이민식, 오경자 (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 이봉주, 민원홍 (2015). 아동·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청소년학연구*, 22(8), 335-361.
- 이아름 (202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유아 문제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상담심리교육복지*, 8(3), 117-134. <https://doi.org/10.20496/cpew.2021.8.3.117>
- 이지민, 노은혜, 김연하 (2016). 한국 아버지들의 양육스타일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참여. *아동과 권리*, 20(3), 331-346. <https://doi.org/10.21459/kccr.2016.20.3.331>

- 이지예, 신경순, 김영희 (2017). 아버지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0(1), 59-81.
<https://doi.org/10.47801/KJIMH.10.1.4>
- 이형실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우울,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20(3), 17-28.
- 이형실 (2023).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양육행동 간 관련성에 서 우울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2), 821-830.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22.821>
- 임미지, 문혁준 (2014). 유아의 의도적 통제, 부부갈등, 부모 역할지능과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인간발달연구*, 21(1), 159-179.
- 임현주 (2015). 유아의 성별에 따른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5(2), 97-115. <https://doi.org/10.18023/kjece.2015.35.2.005>
- 임화정, 도미향 (2025).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2(1), 27-46.
<https://doi.org/10.61400/JPE.2025.22.1.27>
- 장영애, 이영자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19(3), 183-205.
<https://doi.org/10.21479/kaft.2011.19.3.183>
- 정연아, 유준호 (202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디지털 양육 역량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9(4), 139-161.
<https://doi.org/10.22590/ecee.2025.29.4.139>
- 정춘희, 박성철, 전동일 (2023). 부부갈등과 자녀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4(3), 4307-4318. <https://doi.org/10.22143/HSS21.14.3.306>
- 정현숙 (2004). “결혼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조해연, 유준호 (2021).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모역할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9), 609-622.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9.609>
- 최경일, 조성희 (2022). 어머니가 인식한 부부 갈등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5), 1111-1124.
<https://doi.org/10.22143/HSS21.13.5.78>
- 하문선 (2018).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와의 상호작용 및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1), 529-552.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21.529>
- 한영숙 (2019). 부부갈등, 부모공동양육, 아동의 내재적·외현적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 *아동학회지*, 40(4), 109-122. <https://doi.org/10.5723/kjcs.2019.40.4.109>
- 현정환 (201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8, 1-20.
<https://doi.org/10.37918/kce.2018.01.108.1>
- 홍길희, 문소라 (2019). 부모의 심리적 변인과 아동의 문제행동 및 집행기능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3(3), 497-519.
<https://doi.org/10.21459/kccr.2019.23.3.497>
- 홍선표, 한세영 (2025). 부모의 자기자비, 자기냉담이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과 온정수용 양육행동의 순차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8(1), 1-23.
<https://doi.org/10.35574/KJDP.2025.38.1.52777.52777>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1). Manual for the ASEBA school-age forms & profiles.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pp. 93-97).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ngold, A., Costello, E. J., & Erkanli, A. (1999). Comorbidity.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0(1), 57-87.
<https://doi.org/10.1111/1469-7610.00424>
- Barroso, N. E., Mendez, L., Graziano, P. A., & Bagner, D. M. (2018). Parenting stress through the lens of different clinical groups: A systematic review &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6(3), 449-461.
<https://doi.org/10.1007/s10802-017-0313-6>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https://doi.org/10.2307/1129836>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pp. 45-50). New York: Gardner Pres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arrère, S., & Gottman, J. M. (1999). Predicting divorce among newlyweds from the first three minutes of a marital conflict discussion. *Family Process*, 38(3), 293-301. <https://doi.org/10.1111/j.1545-5300.1999.00293.x>
- Cox, M. J., & Paley, B. (1997). Families as system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243-267.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48.1.243>
- Danzig, A. P., Dyson, M. W., Olino, T. M., Laptook, R. S., & Klein, D. N. (2015). Positive parenting interacts with child temperament and negative parenting to predict children's socially appropriate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4(5), 411-435.
<https://doi.org/10.1521/jscp.2015.34.5.411>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 <https://doi.org/10.1037/0033-2909.116.3.387>
- Fang, Y., Luo, J., Boele, M., Windhorst, D., Van Grieken, A., & Raat, H. (2024). Parent, child, and situa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parenting stress: A systematic review.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3, 1687-1705. <https://doi.org/10.1007/s00787-022-02027-1>
- Gong, Q., Kramer, K. Z., & Tu, K. M. (2023). Fathers'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skills: A moderated-mediation model of conflict resolution and 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7(7), 1048-1059. <https://doi.org/10.1037/fam0001102>
- Gottman, J. M., & Levenson, R. W. (1999). Rebound from marital conflict and divorce prediction. *Family Process*, 38(3), 287-292. <https://doi.org/10.1111/j.1545-5300.1999.00287.x>
- Han, J. W., Yang, B., & Lee, H. (2024). Serial dual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n life satisfaction among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with chronic conditions. *Healthcare*, 12(4), 461. <https://doi.org/10.3390/healthcare12040461>
- Hayes, A. F., & Preacher, K. J. (2010). Quantifying and tes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when the constituent paths are nonlinea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5, 627-660. <https://doi.org/10.1080/00273171.2010.498290>
- Hong, Y. R., & Park, J. S. (2012). Impact of attachment, temperament and parenting on human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55(12), 449-454. <https://doi.org/10.3345/kjp.2012.55.12.449>
- Horoz, N., Buil, J. M., Koot, S., Van Lenthe, F. J., Houweling, T. A., Koot, H. M., & Van Lier, P. A. (2022). Children's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and peer relationships across elementary school: Associations with individual- and school-level parental educ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3, 119-137. <https://doi.org/10.1016/j.jsp.2022.06.005>
- Huaqing Qi, C., & Kaiser, A. P. (2003). Behavior problems of pre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review of the literatur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3(4), 188-216. <https://doi.org/10.1177/02711214030230040201>
- Kopp, M., Lindauer, M., & Garthus-Niegel, S. (2024).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employment and the child's mental health: A systematic review with meta-analysi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3, 3025-3042. <https://doi.org/10.1007/s00787-023-02164-1>
- Lee, S. J., Pace, G. T., Lee, J. Y., & Knauer, H. (2018). The association of fathers' parental warmth and parenting stress to child behavior problem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91, 1-10. <https://doi.org/10.1016/j.chidyouth.2018.05.020>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Pears, K. C., Kim, H. K., & Brown, K. L. (2018). Factors affecting the educational trajectories and outcomes of youth in foster care. In E. Trejos-Castillo & N. Trevino-Schafer, (Eds.), *Handbook of foster youth* (pp. 208-222). New York: Routledge.
- Ping, Y., Wang, W., Li, Y., & Li, Y. (2023). Fa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burnout. *Current Psychology*, 42, 25683-25695. <https://doi.org/10.1007/s12144-022-03667-x>
- Sayal, K., Washbrook, E., & Propper, C. (2015). Childhood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outcomes in adolescence: Longitudinal population-based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54(5), 360-368. <https://doi.org/10.1016/j.jaac.2015.02.007>
- Ulbricht, J. A., Ganiban, J. M., Button, T. M., Feinberg, M., Reiss, D., & Neiderhiser, J. M. (2013). Marital adjustment as a moderator for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paren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1), 42-52. <https://doi.org/10.1037/a0031481>
- Ünsal, F. O., Acar, I. H. (2023). Pathways to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a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pproaches. *Children* 2023, 10(4), 639. <https://doi.org/10.3390/children10040639>
- Ward, K. P., & Lee, S. J. (2020).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ress, responsiveness, and child wellbeing among low-income famili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6. <https://doi.org/10.1016/j.chidyouth.2020.105218>
- Xuan, X., Chen, F., Yuan, C., Zhang, X., Luo, Y., Xue, Y., & Wang, Y.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onflict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parenting stress and child emotionalit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95, 209-216. <https://doi.org/10.1016/j.chidyouth.2018.10.021>